

집 떠난 갈매기 부부의 1월 이야기

평안하시죠?

저희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떠나려니 생각보다 처리해야할 문제들도 많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떠날 시간이 성큼 다가오더라고요.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 앞에 준비되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놓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도움들을 받게 되기도 하고, 재정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장도 없고, 간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현재 상태는 더 없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포도주를 주실 텐데 그것을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는 시간이 될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 애매한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출국 전에 남원과 부산 집에 들러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명절에나 잠깐 내려가서 서둘러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더 여유있게 머물러 있으면서 더 잘 섬겨드리고 싶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 하느라 오히려 더 정신없이 보낸거 같습니다. 너그럽게 저희의 여행을 허락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걱정들을 갖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감사하기도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저희 가족들 안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는 27일 김해공항에서 출국하여, 도쿄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미국 LA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다보니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도 27일 이더라구요. ^^; 지금은 LA YWAM 베이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긴 여정으로 인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후 늦게 베이스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짧은 메일 몇 통으로 저희를 선뜻 맞아 주시니 말입니다.



LA라서 한국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곳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살면서 차가 없어서 불편하고 문제가 되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서 장을 보고, 돌아다니려고 보니 차가 있으면 15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스텝들이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정보들을 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보고 다니고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새삼 지난 시간 깨닫지 못한 감사를 다시 깨우치게 합니다.^^



저희는 2월5일 콜롬비아 보고타로 출국하여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LA에 있으면서 조금 여유있게 몸과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정해진 것은 LA 베이스에서의 일주일과 남미의 마지막 일정이 될 브라질 뿐입니다. 콜롬비아를 거쳐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더 컨택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는 호스텔 혹은 캠핑장 등을 이용하며 그곳에서 여행객과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저희의 여행이 낯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자라가길 기도해 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가 유난히 짧은 줄 알지만, 각 가정 안에 더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의 소소한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 blog.naver.com/hearngo0924
- * facebook.com/0924hellomydream
- * e-mail: hearngo0924@naver.com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